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강지연 자매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4. 예배 후 권지선 자매님을 위한 베이비 샤워가 있습니다.
5.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4일 : 위희준 25일 : 강태이
 - 27일 : 조은 Milan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안지현 / 설교번역: 위충일
- 4월 안내 및 봉사: 슬기로운 목장

*향후 교회 일정

- 4월 정기 심방 : 코니 목장
- 전교인 가족캠프: 6월 8-9(토,주), Prairie River Camp

*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6주)

시편 23편 / 눅 24:36b-48 / 행 3:12-19/ 요일 3:1-7

교회세운날 2017.6.11

23-16

4월 21일 (부활절 넷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on Zoom
마지막 주 수요일은 목자모임으로 대체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현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편 84:1-4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강지연 자매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4장 16-26절 ——— 인도자

설교 ——— 영과 진리를 가지고 한 얼굴로 예배하라 — 김경현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현 목사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바람불어도 좋아

지난 한 주 날씨가 변화무쌍했지요? 주초에 봄비가 연두빛깔 아우성으로 잠자는 생명을 깨우듯 힘 있게 내렸습니다. 농사꾼의 자녀들이 비를 반기는 이유가 비가 오면 그날은 농사일을 쉬기 때문이라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비가 오면 설렙니다. 이슬비로는 일을 쉬지 않으니 주럭주럭 힘 있게 내리는 비여야만 반갑습니다. 주말로 가면서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 바람이 거세집니다. 안락하고 따뜻함에 익숙한 비루한 몸이라 그런지 바람을 맞으며 우뚝 서서 걸을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바람부는 날엔 좋아하는 산책도 멈추고 아직은 앙상한 흔들리는 가지들만 창밖으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다채로운 봄날씨 앞에서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네 인생이야 말로 명과 암이 공존하고, 바람은 언제 불어 닥칠지 알 수 없고, 곳은 날과 맑은 날이 대중 없이 교차합니다. 인생이 일기예보 정도만큼이라도 한 치 앞을 알 수 있다면 좋으련만 고요한 일상에 갑자기 불어 닥치는 풍파에 정신을 못차리고 나가 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 가려고 만물이 요동하며 몸부림 치듯, 우리 삶에 불어 오는 변화와 풍파들은 우리 삶에 시작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일기예보는 아닐까요. 어떤 이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이곳의 삶의 특성상 떠나는 이들이 낯설지 않고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가 부화하려면 알을 깨고 나와야 하듯이 익숙한 것을 깨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옮겨 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더 큰 세계를 향한 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삶을 즐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나그네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 보다는 더 큰 것은 정서적 긴장감일 것입니다. 지속적인 긴장 속에 머물 때 마음속 여백은 줄어들고 삶은 여유를 잃게 됩니다. 여백과 여유를 잃은 삶은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은 통명스러워지고 표정 또한 어둡고 싸늘해 지기 쉽습니다. 원망이 커지고 분노심을 주체할 수 없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럴 수록 더 큰 세계를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몸의 자세를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고들 합니다. 여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굳이 돈 들고 짐 떠나 고생하는 것이지만 자세를 바꾸고 시선을 바꾸기 위해 여행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산책은 여행을 대체할 다음 처방전입니다. 농사 짓던 시절 포대에 곡식을 담을 때 곡식의 빈틈을 매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려고 포대를 들었다 놔다 반복하며 추겨 세우곤 하죠. 산책이 마치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걷기를 반복하다 보면 긴장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 해소됨을 느낍니다. 계절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 앞에서 초라해지는 우리지만, 그 변화 속에서 우리네 삶에 일어날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상상해 봅니다. 다채롭고 버라이어티한 우리네 삶이지만 그 안에서 여백을 찾고 여유를 찾아 따뜻하고 부드럽게 타자들을 보듬어 주는 삶이길 바라봅니다.